

마태복음

제 1 장

1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2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8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아를 낳고

9 웃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11 요시아는 여고니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니라.

12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투바벨을 낳고

13 스투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킴을 낳고 엘리아킴은 아소르를 낳고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17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열네 세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열네 세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세대라.

18 ¶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뱃속에서 잉태하였나

19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20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1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22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24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아를 낳고,

웃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빌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요시아는 여코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빌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코냐는 살라디엘을 낳고, 살라디엘은 스투바벨을 낳고,

스투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킴을 낳고, 엘리아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므로 전체 세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십사 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까지 십사 대요,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십사 대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은밀히 단절하려고 작정하더라.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네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

그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25 그녀가 그녀의 딸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으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 2 장

1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매,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4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바,

6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였나이다, 하매

7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 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9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10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12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13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을 전해 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하매

14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15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러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였더라.

16 ¶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 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략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을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두 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17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렀으되,

18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19 ¶ 그러나 헤롯이 죽으매,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20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21 그가 일어나 어린아이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녀가 첫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제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고 하더라.

헤롯왕이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더불어 불안해 하며

백성의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고 하였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때 헤롯이 그 현자들을 은밀히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시각을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어린아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 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어린아이가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를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니,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를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노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후 헤롯이 현자들에게 속은 줄 알자 심히 분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그가 현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 때를 기증하여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사는 모든 사내아이를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이니, 말씀하시기를

“라마에서 슬피하고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우는 것이요, 그녀가 자식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함이라.

헤롯이 죽으니, 보라,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그 어린아이를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고 하니,

그가 일어나 어린아이를 아이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22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23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제 3 장

1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2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 풀이더라.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6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7 ¶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려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이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10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11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때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12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쓸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13 ¶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14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15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16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17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제 4 장

1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들어가사

2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주리시니라.

3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4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부친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를 통치한다 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이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풀이더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주위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더라.

그러나 요한이 말리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니, 이에 그가 허락하더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사십 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에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아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5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6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8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 주며

9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엮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매

10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1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12 ¶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14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15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16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17 ¶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8 ¶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1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21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22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 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23 ¶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24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 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25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제 5 장

1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2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 주며

말하기를 "네가 내게 엮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시더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안에 있는 카퍼나움에 가서 거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요단 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 길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흐얍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셨느니라.

그 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들을 버려 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주께서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셨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으로,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들을 잡고 있더라.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 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 주시더라.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 주시니라.

그러자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3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4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5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7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8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9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10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11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3 ¶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밭밑에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15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 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 ¶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1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일 점 일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의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 ¶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협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협에 처하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내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나

24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맨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25 내가 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직무 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임이요,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임이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밭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 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한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 형제가 네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네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그 대적이 어느 때나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고, 재판관도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26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 ¶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의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30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의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31 또 일렸으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 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33 ¶ 또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35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36 네가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네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37 오직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38 ¶ 그들이 말한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40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네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41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 리를 가며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43 ¶ 그들이 말한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45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제 6 장

하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한 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옛사람들에게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던져 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잘라 던져 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주라.'고 말했던 바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너희는 또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지니라. 또 주께 했던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그분의 발판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임이라.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 대라.

또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외투까지도 갖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일 미리오를 가자고 하거든 이 미리오를 동행해 주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에게만 문안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1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3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친히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5 ¶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6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7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10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이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13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14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6 ¶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17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 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네 얼굴을 씻으라.

18 그리하여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19 ¶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서는 썩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20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서는 썩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21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22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23 네 눈이 악하면 네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자선 행위가 은밀히 되어져서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친히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또 네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에서와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또 너희가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히 계시는 네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 거기서 썩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서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 두라. 거기서 썩이나 녹이 해치지 않으며, 또 거기서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네 눈이 순전하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네 눈이 악하면 네 온몸도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니라.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24 ¶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26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공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일 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30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33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 날에 족하니라.

제 7 장

1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2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3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4 혹은,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5 너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6 ¶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7 ¶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10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11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

나?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 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나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유의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의 솔로몬도 이 들꽃 하나만 갈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호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날의 재앙은 그 날로 충분하니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주마.’라고 네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네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 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함이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자들이니라.

13 ¶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15 ¶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악탈하는 이리니라.

16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20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 ¶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24 ¶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25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26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27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8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매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29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제 8 장

1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2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3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이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5 ¶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아와 그분께 간청하여

6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 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악탈하는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음이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져 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그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

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아와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라고 하자

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 주리라, 하시니

8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9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 다, 하매

10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 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11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12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굶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3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오니라.

14 ¶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15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16 ¶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 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 주시니

17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 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18 ¶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의 큰 무리들을 보시고 건너편 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시니라.

19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하니

2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21 또 그분의 제자들 중의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23 ¶ 그분께서 배에 오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24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 되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25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26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28 ¶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29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 주리라.” 고 하시니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니, 그의 종이 그 시각에 나오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 주시니라.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더라.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에워싼 큰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시더라.

어떤 서기관이 나아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 고 하시니라.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주께서 건너편 겔게사인들의 지방에 가시니,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두 남자가 무덤에서 나와 주를 만났는데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30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31 이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하매

32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즉 그들이 나와서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 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물속에서 죽으니라.

33 돼지들을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마귀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니

34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라.

제 9 장

1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시니

2 보라, 그들이 마비 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이아, 기운을 내고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3 보라,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니

4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5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6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에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매

7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

8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9 ¶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10 ¶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12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13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14 ¶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 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16 아무도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라고 하더라.

그들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우리를 쫓아 내시려거든 우리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고 하시자, 그들이 나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산비탈을 급히 내리달려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더라.

그러자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성읍으로 달려가서 모든 일과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일어난 것을 말하니라.

보라, 온 성읍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 그를 보고 그들의 지경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리고 주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자기 성읍에 도착하시니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주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이아, 기운을 내라.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보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신 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그러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한 남자가 세무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와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앉았더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깎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기운 형질이 그 옷을 당기어 더 흉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라.

17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낚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18 ¶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보라,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19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그리하더라.

20 ¶ 보라, 열두 해 동안 유행병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21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22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23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사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24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25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사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26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27 ¶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28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하매

29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이다, 하시니

30 그들의 눈이 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더라.

31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그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32 ¶ 그들이 나갈 때에, 보라, 그들이 마귀 들러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33 그 마귀가 내쫓기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 무리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결코 그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하나

34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

35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니라.

36 ¶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37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제 10 장

1 그분께서 자기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되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부으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어떤 관원이 그에게 와서 경배하며 말하기를 “제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나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보라, 십이 년 동안 유행병을 앓던 한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겹옷단을 만지니라.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고 하시니, 그 여인이 그 시각으로부터 나오니라.

예수께서 그 관원의 집에 오셔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들썩한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를 비웃더라.

그러나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주께서 들어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나는지라.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그에게 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그리하옵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뜨이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온 지방에 그의 명성을 퍼뜨리니라.

주와 그 일행이 떠나갈 때에, 보라,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병어리 한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니라.

그 마귀가 쫓겨나자 그 병어리가 말을 하더라. 무리가 놀라며 말하기를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마귀들의 통치자를 함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니라.

그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허약함을 고쳐 주시더라.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음이라.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의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자기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니라.

2 이제 그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3 빌립과 바돌로매와 도마와 세리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대오인 렵베오와

4 가나안 사람 시몬과 기럿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5 예수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6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7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8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9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낫을 준비하지 말고

10 여행을 위해 짐 보따리나 덧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11 너희가 어느 도시나 고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알아내고 거기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12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에 문안하라.

13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것 위에 임하게 하되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14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나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1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16 ¶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17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18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19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니라.

21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22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3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24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25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죽어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비열세불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26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 둔 것 중에서 드러나

그 열두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즉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요, 그의 형제 안드레이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요,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라는 별명을 가진 렵베오,

카나안인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옷이니, 그는 주를 배반한 자더라.

예수께서 이 열둘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케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너희의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낫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 벌의 겹옷이나 신들이나 지팡이들도 지니지 말라.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

어느 성읍이나 촌락에 들어가든지 거기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아, 너희가 거기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에 문안하라.

만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화평이 그 집 위에 내리게 하고, 만일 합당치 못하면 너희의 화평이 너희에게로 되돌아오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읍에서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임이라.

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러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각에 너희에게 말할 바를 주시리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니라.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하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다녀 보지 못하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라.

제자가 자기의 선생같이 되고 종이 그 주인같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비열세불이라 불렀다면, 그 집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 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27 내가 어둠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28 몸은 죽어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29 참새 두 마리가 일 앓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31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32 그러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4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35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36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리라.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39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40 ¶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41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 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11 장

1 예수님께서 자기의 열두 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2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의 두 사람을 보내어

3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니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5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머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키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6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 ¶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 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두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들의 성읍에서도 가르치며 전파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시더라.

그때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그의 두 제자를 보내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간 후,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9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11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12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13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14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5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6 ¶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17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19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20 ¶ 그때에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21 고라신아,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벧새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운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네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 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2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25 ¶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26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28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30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제 12 장

1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 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사람이더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라.

이것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네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느니라.”고 하시니라.

그후 주께서는 자기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신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벧새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운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 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하였던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니라.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쉬음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을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쉬음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

2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거늘

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 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5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7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8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9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10 ¶ 보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12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14 ¶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가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15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16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셨으니

17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18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19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21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22 ¶ 그때에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 주시니 눈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23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니

24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5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시장하여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해서 하였던 일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 먹어서는 아니되는 차려 놓은 빵을 자기와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니까?”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붙잡아서 들어올리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펴라.”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에 대하여 모의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 주께서 그들을 다 고쳐 주시고,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라.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울부짖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한 아무도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연기 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에 소망을 두리라.” 하신 것이라.

그후에 눈멀고 병어리 된, 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주께 데려오니, 그를 고쳐 주시니라. 그러므로 그 눈멀고 병어리 된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니,

무리들이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느니라.



26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27 또 내가 비열세복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30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멀리 헤치는 자니라.

31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32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33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34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35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36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37 네 말들로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들로 네가 정죄 받으리라, 하시니라.

38 ¶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께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3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0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41 심판 때에 니스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2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3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쉼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44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45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리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46 ¶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비열세복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홀뜨리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이는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되고, 또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것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심판 때에 니스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음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쉼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소제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일곱 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47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48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49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제 13 장

1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2 큰 무리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3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4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매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 버렸고

5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6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7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들이 돌아와 그것들을 숨 막히게 하였느니라.

8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매 얼마는 백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삼십 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9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0 제자들이 나아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12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16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으므로 복이 있도다.

1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18 ¶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19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 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20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그때에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시니라.

그 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드니, 주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 버렸으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일백 배로, 어떤 것은 육십 배로, 또 어떤 것은 삼십 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아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 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21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22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23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백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삼십 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24 ¶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25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26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28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29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놓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31 ¶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32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33 ¶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34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36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37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42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앓이 있으리라.

43 그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일백 배로, 어떤 사람은 육십 배로, 또 어떤 사람은 삼십 배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 버리니

씨가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도 나오니라.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 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나이까?’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를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들이게 하리라.’고 하시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귀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시며,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 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들로 말하고 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와서 말씀드리기를 “밭의 독보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케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앓고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44 ¶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 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 ¶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46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7 ¶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48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50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앓아 있으리라, 하시니라.

5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라.

52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53 ¶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54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55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가라 하지 아니하느냐?

56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57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58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제 14 장

1 그때에 사분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2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3 ¶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4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다.

5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6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7 이에 그가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8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매

9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 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 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으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앓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예, 주여.”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 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다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 같은 권능이 어디서 왔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면서

그들이 주를 배척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 때에 영주 헤롯이 예수의 명성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그의 안에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다.”고 하더라.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음이라.

그리하여 그가 요한을 죽이려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음이라.

그러나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한지라.

이로 인하여 그가 맹세로 약속하기를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녀에게 주겠다고 하니,

그녀가 자기 어미의 지시를 미리 받고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여기 쟁반에 담아 주소서.”라고 말하였더라.

왕은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였더라.

10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11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12 그의 제자들이 와서 몸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께 가서 아뢰니라.

13 ¶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14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붙잡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15 ¶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에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매

17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단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있나이다, 하니

18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19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21 먹은 자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오천 명쯤의 남자들이더라.

22 ¶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24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25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26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27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28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29 그분께서, 오라, 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30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32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33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4 ¶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매

35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병든 모든 자들을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그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을 목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와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더라.

그후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지내고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니라.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배로 그곳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성읍에서 걸어서 그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갈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입니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고,

무리를 풀밭에 앉으라 명하신 후에 빵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차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약 오천 명이더라.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흠여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 제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미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온 지방에 소식을 보내어 모든 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와,

36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이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제 15 장

1 그대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2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3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4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5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6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7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가야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렸으되,

8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 ¶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12 그대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매

13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터이니

14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15 그대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

16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17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8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20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1 ¶ 그대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22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 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니

23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주의 걸옷단만이라도 만지기를 간청하였으며,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오니라.

그대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이 무엇이냐 예물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가야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대에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그대로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방에서 나오며 그에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24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25 그때에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26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며

27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

28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29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니

31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2 ¶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붙잡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33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의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이까?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35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며

36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37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떼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일곱 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38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사천 명이었더라.

39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제 16 장

1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 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매

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3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굿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 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 둔 채 떠나가시니라.

5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6 ¶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7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8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나니,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지이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으로 나오니라.

그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름발이와 소경과 병어리와 불구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병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며,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을 머물렀으나 먹을 것이 없고, 혹 그들이 도중에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빵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는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일곱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일곱 덩어리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차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사천 명이더라.

주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막달라 지경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면 ‘오늘은 날씨가 굿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의논하느냐?

9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10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11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12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13 ¶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14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의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1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1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20 그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21 ¶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22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23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에서 난 일들을 좋아하노다, 하시니라.

24 ¶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25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27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2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 17 장

1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너희는 아직도 빵 다섯 덩어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또 빵 일곱 덩어리로 사천 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는지 깨닫지도 못하며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달더라.

예수께서 카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그 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기 시작하시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2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3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나니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5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6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7 예수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10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매

11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1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13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야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14 ¶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15 주여, 내 아들에게 궁핍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속에 빠지나이다.

16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17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18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오니라.

19 그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2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을진대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 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 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2 ¶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23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24 ¶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공세 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야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더라.

그들이 무리에게 오자 한 사람이 주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그래서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으로 나오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매우 슬퍼하더라.

그들이 카퍼나움에 왔을 때에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시느냐?”고 하니

25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나?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나, 타인들에게서나? 하시니

26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리라.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 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네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제 18 장

1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이까? 하매

2 예수님께서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6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7 ¶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이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이다!

8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리라.

9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리라.

10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11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12 너희 생각은 어떠하나?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의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아흔아홉 마리를 남겨 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느냐?

1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5 ¶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 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16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17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나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나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들어오니 예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정세를 걷느냐? 그들의 자손들에게서나,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나?”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타인들에게서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자손들은 면제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케 해서는 아니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더라.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실족케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서 던져 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리라.

또 네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 던져 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뵈고 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또 네 형제가 네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나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묵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묵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19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21 ¶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하며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하라.

23 ¶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24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25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26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 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27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 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28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떡살을 잡고 이르되,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며

29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 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30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31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32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네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33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34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35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제 19 장

1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의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므로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3 ¶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아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며

4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5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묵으면 하늘에서도 묵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일곱 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라고 하노라.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일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참아 주소서. 그러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겨 풀어 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일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어 떡살을 잡고 말하기를 ‘네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참아 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라고 하니,

그가 들어 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더라.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하였더라.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오 너 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애걸하기에 나는 네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가엾게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며,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리나라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시어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가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랐으며,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바리새인들도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6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돌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7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박하므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10 ¶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12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더러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더러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으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 어다, 하시니라.

13 ¶ 그때에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14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고

15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16 ¶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17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18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20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이까? 하거늘

21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22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25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26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돌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와의 경우가 그런 것이라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주어진 자들만이 받느니라.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고, 사람에게 의해서 고자 된 자들도 있으며,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다.” 하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하시며,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시더라.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 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27 ¶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매

2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29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백 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30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제 20 장

1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2 그가 하루에 일 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 또 세 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놓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적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5 다시 그가 여섯 시와 아홉 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6 또 열한 시쯤에 나가서 놓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놓고 서 있느냐? 하매

7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적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8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9 열한 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일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10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일 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11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12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낫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대, 하니

13 그가 그들 중의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일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에도 주리라.

15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하므로 네 눈이 악하냐?

16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17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열두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18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19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일백 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그가 세시쯤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라.’고 하니, 그들이 가더라.

주인이 다시 제육시와 제구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고

또 제십일시경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니이다.’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고 하더라.

제십일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라.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그들도 각각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 집주인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종일 별에서 짐을 진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대.’라고 하니,

주인이 그 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 나의 선함이 네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길에서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으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20 ¶ 그때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아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21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22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잡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2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잡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쪽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24 그 열 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거늘

25 예수님께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28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29 그들이 여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30 ¶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31 그들이 잠잠해야 하므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32 예수님께서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33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매

34 이에 예수님께서서 그들을 붙잡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제 21 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에, 올리브 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매여 있는 나귀와 그것 곁의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4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렸도되,

5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6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그때에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쪽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열 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후,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여러코에서 나가니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보라,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 그들이 주를 따르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 근처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수나귀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의

없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8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거늘

11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12 ¶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교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엎으시고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14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니

15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16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17 ¶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 둔 채 도시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 들어가사 거기서 묵으시니라.

18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시더라.

19 그분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라, 하시매 곧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리니

20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 버리는가! 하매

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22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23 ¶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 하거늘

2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25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왔느냐? 하시매 그들이 서로 따져 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왔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27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옷을 엮고 그 위에 주를 태우더라.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 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시더라.

또 눈먼 자들과 절름발이들이 성전에서 주께 나아오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또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하니, 그들이 몹시 불쾌하여,

주께 말하기를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나이다.’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고 하시니라.

그들을 떠나시어 그 도성에서 나가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묵으시더라.

주께서 아침에 그 도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네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 버리더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말씀드리기를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곧 말라 버렸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후 주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가르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주께 와서 말하기를 “무슨 권세로 당신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만일 너희가 말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할 것이요,

우리가 사람에게서라 말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므로 백성이 두렵도다.”라고 하더니,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28 ¶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이야,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30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31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32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3 ¶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땅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우고 먼 나라로 갔다가

34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니

35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36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37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38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

39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40 그러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41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 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주리라, 하매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44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45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았으나

46 그분께 손을 대려 할 때에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더라.

제 22 장

1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3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이야,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라고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이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를 믿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파고 땅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그후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소출을 받아 오라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또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쳤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 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주리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에 대하여 말한 것인 줄 알더라.

한편 그들은 주를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무리를 두려워하더라.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5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6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7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8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9 그러즉 너희는 큰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 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10 이에 그 종들이 큰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 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11 ¶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네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하니라.

14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15 ¶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16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다.

17 그러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18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공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2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21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23 ¶ 바로 그 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24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25 이제 우리에게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고

26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 그러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일곱 사람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고 일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 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오라.’고 하였더니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 오니, 그 혼인 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갚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그가 말하는 것으로 올라가기를 썩을까 하고 의논하더라.

또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실하시며 또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으시는 것을 아오니, 이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데나리온 한 닢을 주께 가져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라고 주께 말씀드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서 주를 떠나가더라.

그 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우리 가운데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일곱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

30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31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33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34 ¶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35 그때에 그들 중의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36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38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39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40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41 ¶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42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4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44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느냐?

45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대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 아무도 능히 한 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 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제 23 장

1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2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4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5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위하여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6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가는 자리와

7 시장에서 인사 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여, 랍비여,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한편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사두개인들을 조용하게 만드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모였더라.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 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 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족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여, 랍비여.’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9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10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11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 ¶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1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걸치레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15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빗진 자라! 하는도다.

17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나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나?

18 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책임이 있다, 하는도다.

19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나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나?

20 그런즉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며

21 또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고

22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2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24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5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27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29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도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 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빗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나,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니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더 중요한 것을 빼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수리하며

30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31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32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33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34 ¶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의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의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35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상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카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하게 돌아가리라.

37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압타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8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 24 장

1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 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3 ¶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어이이까? 하니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6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9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11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12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함이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라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하리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압타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 드리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바 황폐하게 하는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16 그대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이다.

17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18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19 그 날들에는 아이 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 로다!

20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21 그대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23 그대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 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 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27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28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 리라.

29 ¶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대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대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31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32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33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3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35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 ¶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대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대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그대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 들을 보여 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 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 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41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42 ¶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43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44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45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사람들을 남겨받아 다스리며 제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46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4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처리자로 삼으리라.

48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49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50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51 그를 잘라 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제 25 장

1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찾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2 그들 중의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3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4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6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찾으러 나오라, 하리라.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8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9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며

10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11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나

12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14 ¶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15 그가 하나에게는 오 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이 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일 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 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찾으러 나간 열 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지므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16 이에 오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오 달란트를 더 벌었고

17 이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이 달란트를 더 벌되

18 일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19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20 이에 오 달란트 받은 자는 오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오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오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2 이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이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이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23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4 그 뒤에 일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흘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25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26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흘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27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28 그러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십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30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하니라.

31 ¶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32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33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34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36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라

37 그때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그후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두 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두 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두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 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러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갚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 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 두고

왕이 그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때에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38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39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40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41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43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44 그때에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45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46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제 26 장

1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 너희가 아는 대로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람의 이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3 그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이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4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나

5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6 ¶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붓거늘

8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9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12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지내기 위함이니라.

1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4 ¶ 그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15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서른 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으셨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때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문안 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때에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아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하리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들 후면 유월절인 것을 아나니, 그러면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박히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에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카야파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두 모여,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시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주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무슨 낭비냐?”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노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에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하는 자가 선임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은 삼십 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16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17 ¶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18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느니라, 하라, 하시매

19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 주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20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열들과 함께 앉으시니라.

21 그들이 먹을 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22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게 나나이까? 하매

23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24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5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며, 그게 나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6 ¶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 산으로 가니라.

31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33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35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36 ¶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겻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피하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38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때부터 그가 주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수실 자리를 어디에 마련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에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우니 내가 네 집에서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노라 하시더이다.’” 하시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저녁이 되자 주께서 열들과 함께 앉으시더라.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몹시 슬피하며, 각자가 묻기 시작하기를 “주여, 그가 나나이까?”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에 주를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가 나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고 하시더라.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가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어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겻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41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 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하시니라.

42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44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45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46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47 ¶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보라,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48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49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선생님이며,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51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52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53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54 그러나 그리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시더라.

55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56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57 ¶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 그러나 베드로는 떨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59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60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61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하시더라.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주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세 번째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하시더라.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보라, 열 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온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더라.

주를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시를 정해 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 붙잡으라.” 하고,

곧 그가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아, 선생님.” 하며 주께 입맞추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네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더라.

그런데, 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리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 나에게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 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그 시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에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카야파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떨쩍이 주를 따라가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가서 안으로 들어가 그 일의 결말을 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정녕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라. 마지막으로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삼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63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6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65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66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67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68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69 ¶ 이제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매

71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 다시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거늘

74 그때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매 즉시 수탉이 울더라.

75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제 27 장

1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2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3 ¶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서른 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주며

4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5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6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피 값이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 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7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더라.

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주께 말하기를 "대답할 것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엄명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며,

현관 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자,

그가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네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아침이 되니,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하여 의논하고

주를 결박한 후에 끌고 가서 총독 폰티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삼십 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 주며,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선임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 돈은 피 값이므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치 않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의논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이는 타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 함이라.

8 그러므로 이 날까지 그 밭을 피 밭이라 하느니라.

9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일렸으되,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서른 개를 취하여

10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도다, 하였느니라.

11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도다, 하시고

12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13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네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15 이제 그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총독이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곤 하였는데

16 그때에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더라.

17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19 ¶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 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20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며

21 총독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하거늘

22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라?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23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나,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24 ¶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며

25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니라.

26 ¶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27 이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공동 집회장으로 들어가 군사들의 온 부대를 그분께로 모으고

28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29 ¶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 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30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31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32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

그러므로 그 밭을 오늘까지 피 밭이라 부르더라.

그러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은 삼십 개로 정한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이 정한 그 가격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치렀도다.”라고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라고 하시고,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으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에 대하여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고 하니,

주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기더라.

명절이면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나,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고 하더라.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이더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라고 하니,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둘 중에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니이다.”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하니,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라고 하더라.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고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그때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넘겨주니,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가서 주에게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겹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 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겹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이름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는데,

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33 끌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34 ¶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35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겹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러 함이더라.

36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고

37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38 그때에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39 ¶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40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41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42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 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45 이제 여섯 시부터 아홉 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46 아홉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47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의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48 즉시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서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49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50 ¶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51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52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53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55 거기에는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떨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56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57 저녁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그들이 끌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쓸개즙을 탄 식초를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맛을 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않으시더라.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 주의 옷을 제비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 중에서 나의 옷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뽑았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 앉아서 주를 지키며

주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그때에 두 명의 강도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삼 일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데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제육시에서 제구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구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이다.

거기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서 갈대에 꿰어 주께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더라.

또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멀리 서서 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와 그를 섬기는 여인들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세의 모친 마리아와,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58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매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59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러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61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

62 ¶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63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 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65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제 28 장

1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2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3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웃은 눈과 같이 희거늘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던라.

5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8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 주려고 달려가더라.

9 ¶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려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아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 이제 그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 중의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리매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 갔다, 하라.

14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 주리라, 하니

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였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니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주라고 명령하더라.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함께 모여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기억하건대, 저 미혹하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기를 ‘삼 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셋째 날까지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나중 속임수가 처음보다 더 악화될까 하나이다.”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굳게 지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돌문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더라.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웃은 눈처럼 희더라.

그러자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던라.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뵈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고 하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더라.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아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고 있을 때에, 보라, 경비병 몇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선임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더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는 안전하게 하리라.”고 하더라.

15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 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16 ¶ 그 뒤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 주신 산에 들어가

17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1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19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20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제 1 장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2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3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5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6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7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8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다.

9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10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11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12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13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14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15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16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니라.

그때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더라.

제자들이 주를 뵈고 경배하더라.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그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짐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니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로 막혔느니라.)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21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23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26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27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 일 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것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28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29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 수군하는 자요,

30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31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32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제 2 장

1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하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네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2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3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 다만 네가 네 강퍽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운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이라.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일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부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네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을 뿐이로다.



6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7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8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9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도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도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11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12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13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14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16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17 보라,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18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19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20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21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네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25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28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29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제 3 장

1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임이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 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있으리라.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여

네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 네가 신당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정녕 유익하지만 네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법문과 할례로써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3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4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5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나?

6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8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9 그러면 어떠하나?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10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12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15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므로

16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17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21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22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25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오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26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27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차라리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런 자들의 정죄는 당연하리라.

그러면 어떠하나?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흘리는 데 빠르니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29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지나?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지나?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지나?

30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지나.

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 4 장

1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4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6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7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8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9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다.

10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11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12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13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15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17 (이것은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18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19 그가 백 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나? 물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정녕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이나?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나?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고 했음이라.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또 할례자의 아버지인 할례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버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백 살이 되면서도 자기 몸이

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20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23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25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제 5 장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2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3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6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7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나와

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계시하시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10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11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13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균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15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16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균림하였을진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균림하리라.)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을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균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균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균림할

18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19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20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21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 6 장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3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견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6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떨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7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8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10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 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18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9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을 떨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21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23 죄의 샅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제 7 장

1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姦婦)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6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9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11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12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13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4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16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17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샅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 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색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19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20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노다.

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25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 8 장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2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4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5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6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8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9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11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빛지지 아니하였느니라.

13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15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노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에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17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18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

19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20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21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22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23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가 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25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별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 이것은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도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다면 인내로 기다릴 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째 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



못하리라.

제 9 장

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게 증언하거니와

2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3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오십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8 곧 육체의 아이들이나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9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10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11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도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13 이것은 기록된바, 아람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15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핍을 베풀 자에게 궁핍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16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궁핍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17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18 그런즉 그분께서 궁핍을 베풀 자에게 궁핍을 베푸시고 또 강박하게 할 자를 친히 강박하게 하시느니라.

19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20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21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22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23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궁핍의 그릇들

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카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콥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라고 말하리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

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대 무슨 말을 하리요?

24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25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26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27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28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29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니라, 함과 같으니라.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31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33 이것은 기록된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 10 장

1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2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3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5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6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 혹은, 누가 깊은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8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12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

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고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하지 말라.”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하지 말라.”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시니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17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21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제 11 장

1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2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증보하여 이르되,

3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4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어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나니

5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7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 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 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8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광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울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10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12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서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 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었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증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칠천 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광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울무와 덩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13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14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이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의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리요?

16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17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집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대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19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대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23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 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24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진대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27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28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29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30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31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32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33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35 누가 그분께 먼저 드러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 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첫열매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위한 것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내가 본래의 돌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러서 되돌려 받겠느냐?

36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 12 장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2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3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5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6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7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8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9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10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11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12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13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14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올라.

16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18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19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나,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20 그러므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 13 장

1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2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록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 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3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네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나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5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6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받지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은 자에게 공세를,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8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9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 있느니라.

10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12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14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제 14 장

1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4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는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5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날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7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됴이니 네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라.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날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날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9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11 기록된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12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14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15 그러나 만일 네 음식물로 인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탕으로 걷지 아니하니 네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18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 받느니라.

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 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20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22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제 15 장

1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2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3 기록된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5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6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7 이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8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 하려 하심이요,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는 부정한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네 음식 때문에 네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네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 받느니라.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 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케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으로든지 네 형제를 실족하게도 아니하고 성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 주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써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인 것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9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공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합과 같으니라.

10 또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이여,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11 또 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이여,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이여,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12 또 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13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니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 내 형제들이여,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나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16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17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18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19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20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 오직 이것은 기록된바, 그에 대하여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합과 같으니라.

22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23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24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귄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 줄 것을 바라노라.

25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26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열매를 기부함으로써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27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29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라고 합과 같으니라.

또다시 말하되 “너희 이방인들이여,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이여,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이여, 그분을 찬양하라.” 하였느니라.

또다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에 관하여 내 스스로 확신하는 바는 너희도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그러나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들은 말과 행위로,

능력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노라.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도 여러 번 방해를 받았느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수년 동안 너희에게 가고 싶은 큰 소원이 있었으니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겠노라.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고 우선 너희와 잠시 교제로 기쁨을 나누는 후에 너희의 전송을 받아 그곳으로 보내어지기를 바램이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열매를 기부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30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31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 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32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33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 16 장

1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중 우리의 자매 뵤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4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6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7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8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11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깃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12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배나와 드루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3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바드로바와 헤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 필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림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16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7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측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18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19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 된 우리의 자매 뵤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퀼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 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얻은 첫 열매들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울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날깃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트루페나와 트루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모친, 곧 내 모친에게 문안하라.

아순그리토, 플레곤, 헤마, 파트로바, 헤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롤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림파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1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26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27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중 비베 편에 보내다.

요한계시록

제 1 장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 주시니

2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3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일곱 영과

5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6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다. 아멘.

8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9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10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11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12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일곱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13 그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아멘.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파트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쓴 나 터티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쿠알토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견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너희의 형제이며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밧모라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일곱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일곱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15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16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17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19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 지니

20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

제 2 장

1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일곱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3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6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8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 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9 내가 네 행위와 환란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10 내가 장차 당할 것들 중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12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13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또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14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네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 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 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스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 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란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16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18 두아티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눈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19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21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22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24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25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26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27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제 3 장

1 사데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일곱 영광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2 깨어서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네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 사데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5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네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두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눈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과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에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사데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광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남아 있으나 죽어 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데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의 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7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이, 진실한 이, 다향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8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9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10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11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관(冠)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14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진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16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17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렀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18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19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20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21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은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제 4 장

1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2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3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4 또 그 왕좌 둘레에 스물네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스물네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5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향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진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것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 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스물네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 옷을 입은 스물네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

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7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8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기록하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9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10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冠)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11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제 5 장

1 또 내가 보매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일곱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2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되

3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4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5 장로들 중의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獅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7 그분께서 나아오사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8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매 네 짐승과 스물네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라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10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11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12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14 이에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 하고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는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기록하시도다, 기록하시도다, 기록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스물네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일곱 인으로 봉해졌더라.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나?”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일곱 봉인을 떼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양이 서 있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더라.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스물네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니라.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이다.”라고 하더라.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제 6 장

1 내가 보매 어린양께서 그 봉인들 중의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의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2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3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4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5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일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일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7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8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사분의 일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9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10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더라.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올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12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15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16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17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제 7 장

1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내가 보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또 그 어린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어린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어린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어린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 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십사만 사천이더라.

5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6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7 시므온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8 스블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9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10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하더라.

11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으리이다. 아멘, 하더라.

13 장로들 중의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14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16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찍지 아니하리니

17 왕좌의 한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 있는 물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하더라.

제 8 장

1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2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던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4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5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6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십사만 사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우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므온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잇사갈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스블론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찍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고 하더라.

어린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



던져지니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며

9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부서지더라.

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11 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삼분의 일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13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세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라! 하더라.

제 9 장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2 그가 바닥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3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4 또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5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다섯 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6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7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9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11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12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되,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임하는도다.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 둔 네 천사를 풀어 주라, 하더라.

15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16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이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는 것 같더니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파괴되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삼분의 일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 하고 물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강타를 당하여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삼분의 일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다.”고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다섯 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으며 다섯 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능이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 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이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19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20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건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21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제 10 장

1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2 그가 펴 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3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4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6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7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8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펴 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9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네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10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11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제 11 장

1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며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마흔두 달 동안 밟로 짓밟으리라.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짧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대언하리라.

4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촛대니라.

5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

블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건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 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겠지만 네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달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으며 그들이 마흔두 달 동안 그 거룩한 도시를 밟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짧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6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리다.

7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없는 구렁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8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9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리다.

10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시므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12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13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의 칠천 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리다, 하니

16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7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18 민족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19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 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 12 장

1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열두 별의관이 있더라.

2 그녀가 아이를 배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관이 있으며

4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5 그녀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여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리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칠천 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밴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 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6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천이백육십 일 동안 거기에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7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9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11 그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13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 받게 하려 함이라.

15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17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제 13 장

1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의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옴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4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5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6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7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8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이다.

10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풀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그 용이 자기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뿔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서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마흔두 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11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13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14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15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17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18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 이니라.

제 14 장

1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양께서 시온 산 위에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2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와의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를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3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십사만 사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4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5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6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8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9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10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기록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11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12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능을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육백육십육 이니라.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 산 위에서 계시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의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의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라.”라고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기록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니라, 하시더라.

14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16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18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19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20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골레에까지 닿았으며 천옥백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제 15 장

1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2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4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기록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아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5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6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7 네 짐승들 중의 하나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

8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제 16 장

1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하더라.

2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으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현태가 생기더라.

3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으매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 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쉰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그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 나와 말고뼈까지 닿고 일천육백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니라.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기록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이다.”라고 하더라.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호리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 갈 수 없더라.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아 부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현태가 생기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 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4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 부으매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5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6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니이다, 하더라.

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라.

8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으매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9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11 또 자기의 아픔과 헌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2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으매 그것의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14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 그가 히브리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17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으매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18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19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시니라.

20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21 또 무계가 각기 일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제 17 장

1 또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의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2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3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흥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4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지며 가장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니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이다.”라고 하더라.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싸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데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어졌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이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계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다.

또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가 보여 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장스런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5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7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네게 말하여 주리라.

8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다 없는 구렁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9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라.

10 또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잠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11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12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13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14 이들이 어린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15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16 내가 본 열 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17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18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제 18 장

1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2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다.

3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6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 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 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두 배로 그녀에게 두 배로 갚아 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두 배를 그녀에게 채워 주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하며 놀랐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들이 어린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니라.”고 하더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 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법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두 배로 갚아 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두 배로 채워 주라.



7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롭게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니

8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 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9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롭게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10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므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이다.

11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2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13 옥계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14 네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네게서 떠나갔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네게서 떠나갔으니 네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이다.

15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므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16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17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 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다.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18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19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다. 하리이다.

20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21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뱃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이다.

22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 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뱃돌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 등잔불 빛이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네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네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24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제 19 장

1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다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시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다.

네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니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 주셨기 때문이로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뱃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뱃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3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더라.

4 또 스물네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6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8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9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10 내가 그가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네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니.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12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13 또 그분께서 피에 담긴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14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15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짐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16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18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20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

21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제 20 장

1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다없는 구렁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때에 스물네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 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다.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2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여

3 바닥없는 구렁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잘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4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되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7 그 천 년이 다 차매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8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9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10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11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12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13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14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제 21 장

1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2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3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4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5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6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 년 동안 묶어 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 년이 잘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천 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

라.

7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9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 주리라, 하고

10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11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12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열두 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열두 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니라.

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14 그 도시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15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16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17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매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백사십사 큐빗이더라.

18 그 도시의 성벽 기초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19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21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22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능자와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23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24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25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26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27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 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 22 장

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런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 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에 문이 세 개, 북편에 문이 세 개, 남편에 문이 세 개, 서편에 문이 세 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일백사십사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또 그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양이 그곳의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1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 주니라.

2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3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가 그 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4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5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6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8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 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9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네 동료 종ियो, 대언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돌지니라.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14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15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게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18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20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2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 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 주더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 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